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5월 29일(주일) 제1101호

2016 창조신앙교육축제



창조주를 믿고, 정체성을 깨닫고!

부모와 교사가 다음 세대에 창조신앙 전수해야

창조신앙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아는 것”이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 창조신앙교육축제에서 35인의 강사가 공통적으로 전한 메시지는 “부모와 교사가 창조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전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창조신앙교육축제는 3일 동안 진행됐다. 26일과 27일에는 부모와 교사를 위한 ‘자녀양육

솔루션’, 28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자녀양육 솔루션’에서는 부모와 교사들이 다음세대에게 창조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생활 속 창조, 생명의 설계도, 자연선택과 지적설계, 우주창조의 비밀, 선박공학자의 방주이야기, 유신진화론의 비평을 주제로 강의했다. 저녁집회에서는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설교했다. 기독교학교, 대안학교, 홈스쿨 교육자들의 강연회도 있었다. ‘기독교교육과 창조소명 찾기’를 주제로 부모와 교사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핵심이었다. ‘한국 교육개혁을 위한 크리스천 사명’을 주제로 한 강연회도 이어졌다.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000”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를 위한 ‘창세기탐사 Let's Go!’, 청소년을 위한 ‘In the Beginning’, 청년을 위

한 ‘C4U (Creation for You)’가 바로 그것이었다. 창조와 진화, 생명정보와 지적설계, 창조와 빅뱅이론을 주제로 한 강의로 들었다.

‘아시아 창조학술대회(AACC)’도 창조신앙교육축제와 기간에 개막했다. 아시아 창조학술대회에서 김영길 박사(전 한동대총장)와 Steve Ham 목사(미국창조과학회 AIG 대표)가 강의했다.

임경희 성도(도곡 온누리교회)는 “창조신앙교육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 김미림 · 이소정 기자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라보다, 기도하다, 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다. 2016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은 ‘바라보다, 기도하다, 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재훈 담임목사, 천종호 판사(부산가정법원),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담임), 탈북청년 강디모데 형제(엔케이피플 대표), 전 우택 교수(연세대학교 의학교육과), 이한영 교

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윤정희 사모(강릉 아산병원 원목), 유정옥 사모(소중한사람들 대표)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6월 15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서빙고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사전등록 2만원)이다.

문의: 02-3215-3355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차세대 교사강습회 ‘예수님이야기’

예수님 닮고, 바로 알고, 이웃 섬기는 양육법 전수

차세대사역본부가 주최하는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6월 4일부터 26일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다. 올해 차세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주제는 ‘예수님이야기(The Jesus Story)’이다.

교사강습회에서는 ‘궁금해요 예수님(눅 10:25-37)’, ‘고쳐줘요 예수님(막 2:1-12)’, ‘만나줘요 예수님(눅 19:1-10)’을 주제로 말씀을

배운다. 여름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교사나 국내외 아웃리치(여름성경학교, 위십단을)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석하면 유익하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사전등록 1만5천원, 당일등록 2만원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신청 www.onnuri.org/event/adventure2016)

기도처_ 서산 온누리교회 6면 사역_ 세상을 변화시키는 CEO포럼 7면 전도_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콘서트 8면

농어촌교회의 희망, 완도 ‘송곡성실교회’

아웃리치도 가고 봉어빵사역 후원도 하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열일곱 번째 주인공은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송곡성실교회’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 후원하고 있는 교회다. 지난 22일 그곳에 다녀왔다.

낭만, 바다와 섬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이다. 파사로운 햇볕과 바다 냄새가 가득하고, 눈앞에 푸르른 바다가 펼쳐져 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풍경 속에 송곡성실교회가 있다. 한 폭의 그림 같다.

외지인들에게 바다와 섬이 낭만적일지 몰라도, 섬사람들에게는 아니라고 한다. 섬에서 생활하는 것이 절대 낭만적이지 않다고 한다. 섬사람들에게 바다는 창살이고, 섬은 감옥이라고 한다. 섬에서 나고 자란 이정태 목사(송곡성실교회)도 같은 생각이었다. 목회를 하려고 물으로 나갔던 그가 19년 전인 1997년 다시 섬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도 목회를 하려고 왔다. 다시 돌아온 섬 생활은 전보다 더 힘들었다. 병원에 갈 차비가 없어 24개월 된 둘째 아이를 잃을 뻔 했고, 바람에 날아간 교회지붕을 수리하다 책추가 부러지고, 다리에 철심을 박았다. 지금은 송곡성실교회가 있는 신지도와 완도 본섬을 잇는 다리가 연결되어 교통편은 편리해졌지만 팍팍한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돈이 없어 죽다 살아난 둘째 아이가 내년에 대학에 간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지만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생활은 어렵지만 목회자로서는 참 행복했고, 행복하다. 무너져가던 교회를 회복시켰고, ‘예수’라면 콧방귀 뀌던 많은 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정태 목사와 전남 완도 송곡성실교회

기자가 찾아간 그날도 이정태 목사와 표육자 사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성도들을 교회까지 모셔 올 차량을 운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먼 곳까지 찾아온 기자와 마음 편히 인사 나눌 겨를이 없었다. 짧은 목례만 하고 교회에 들어섰다.

교회 문을 열자마자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 목사의 막내딸 예원이기 막 걸음마를 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분당 한 쪽에는 책을 읽는 아이들이 있었다. 열댓 바도 차세대가 열댓 명은 되어 보였다. 송곡성실교회에는 차세대 예배가 따로 없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그래도 아이들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전남 완도 송곡성실교회 이정태 목사와 가족들.

생기가 넘친다. 송곡성실교회에는 청년 찬양단도 있다. 청년 찬양단이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이 귀한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정태 목사의 설교방식도 특이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했고, 이 목사는 성도들의 궁금증을 즉각 풀어줬다. 한마디로 신명나는 설교였다. 서로 소통하는 설교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 이날도 재미있는 질문이 나왔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은혜”라는 이 목사의 설교에 한 성도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다. “아니 목사님, 맨날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웃음보가 터졌다. 처음 송곡성실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는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설교가 어디 있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교제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곡성실교회 성도들은 각자 사역 하나씩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장, 예배부장, 반찬선교부장, 주보부장, 꽃꽂이선교부장, 미화부장, 교육부장 등 사역도 다양하다. 이정태 목사는 사역에 대해 조언만 할 뿐이지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역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부끄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송곡성실교회가 농어촌교회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송곡성실교회 성도들은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다. 목회자 위주의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다. 성도들이 사역을 담당하다 보니 목회자는 설교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균형 잡힌 농어촌교회가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목사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도에서 자랐다. 금일도는 완도 본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더 들어가야 하는 섬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 목사의 꿈은 섬을 떠나는 것이었다. 24살 무렵 “목회를 하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공부를 하려고 상경했다. 일을 하면서 어렵게 신학을 공부했다. 그 때 표육자 사모를 만났다. 섬에서 나와 결혼하고, 자녀도 둘이나 낳았다. 섬을 떠난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목회자가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력서를 수도 없이 보냈지만 연락이 오는 교회가 없었다. 막막했다. 세 살배기 딸과 생후 100일이 막 지난 둘째 때문이라든가 당장 벌이가 있어야 했다. 마침 완도군 송곡성실교회에서 목회자를 구한다는 연락이 왔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섬 교회였다.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송곡성실교회로 향했다. 교회는 성한 구석이 하나 없었다. 사택은 사람이 사는 곳인지 곰팡이가 사는 곳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과 마을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교회를 ‘분란만 일으키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성도들도 모두 교회를 떠난 상태였다.

송곡성실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혔다. 도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준비했던 이 목사가 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 교

회에 오는 성도도 없을뿐더러 어쩌다 성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도 목회의 기본은 설교와 양육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설교에 집중했다. 좋은 책이나 설교를 수십 수백 번씩 읽고, 들었다. 그때 하용조 목사의 설교가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십여 년의 노력 끝에 주민들이 원하는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도 제법 많이 돌아왔다. 이 목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더 열심히 돌보기 시작했다. 찬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은혜, 박은영, 박승재 남매와의 관계도 그때부터 시작됐다. 3남매의 가정은 붕괴 직전이었다. 부모는 사업에 실패했고, 3남매는 학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사회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면 교회가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이들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 목사가 3남매를 입양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3남매를 돌보았다. 7년 동안 아이들은 훌륭하게 성장했고, 3남매의 부모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회복시켰다. 송곡성실교회의 핵심사역인 ‘반찬사역’도 그때부터 시작했다. 매주 주일 이 목사는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재정이 없어 성도들 간의 식탁교제를 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반찬사역만 큼은 거르지 않았다. 그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일 년쯤 더 지나자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매년 오는 도시교회의 아웃리치도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 지역으로 아웃리치 팀이 오면 주민들은 “송곡성실교회와 이정태 목사 덕분에 호강을 한다”면서 정말 좋아한다.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주민들도 많다.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전라남도 완도 송곡성실교회로 아웃리치를 갔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이미용, 발마사지, 도매봉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송곡성실교회가 있는 송곡리에는 150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송곡성실교회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도 좋다. 이정태 목사와 표육자 사모가 봉어빵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 한 성도가 기계를 후원해줘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어빵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한다. 재료비가 비싸 꾸준히 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이 목사 부부가 봉어빵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봉어빵을 손에 들고 가면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인사조차 나누기 어려운 분들에게 인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쌓는데 봉어빵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문의: 이정태 목사(송곡성실교회)

010-3766-8046

구자엽 담장(서빙고농어촌선교회)

010-4286-0078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역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명과 변명은 다릅니다. 변명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해명은 진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실하다고 해도 역울한 상황에 처하면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당황하고, 흥분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몰아세우면 더욱 흥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장되게 말하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중요합니다. 역울한 상황일수록 진실만을 나눌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역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사람들이 추정해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 뜰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잘못된 소문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많은 편견과 오해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씌운 죄목은 변절자입니다. 그가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고, 이방인을 함부로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대교를 변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바울을 제거하려고 퍼뜨린 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고 얼마 전에 4천 명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광야에서 반란을 주도했던 이집트인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

사도 바울이 성난 유대인 군중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층계 위에 서서 히브리어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차분하고, 당당하게 성난 군중들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습니다. ‘해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defence’라고 썼지만, 헬라어로는 ‘아폴로기아’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벧전 3:15).

여기서 ‘대답하다’는 표현이 아폴로기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변증’입니다. ‘증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증거입니

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합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증언은 단순한 해명이나 변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여섯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번, 가이사라에서 4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베스도 총독에게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는 죄가 없다”고 세 번씩이나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22장부터 기록된 바울의 여정을 ‘죄수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역울함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유대교에 대한 변절이나 배신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변혁’(transformation)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 썼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행 22:3-5).

해명을 넘어 증거로

행 22:1~10

주님을 만남으로, 영의 눈이 피어진 것을 간증함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충실한 유대인, 율법학자,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해명함으로써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변혁이 어디 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경험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만남에서 나온 지식이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머리에 채운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내 머리에 채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지식을 채움으로 교만하게 될 수 있고, 지식에 갇힐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남은 다릅니다. 만남은 나의 지식을 변화시킵니다. 만남은 나의 지식이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계획했던 만남이 아닙니다. 그가 기대했던 만남도 아닙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임재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언제나 만남에서 옵니다.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믿는 것입니다. 만남으로 믿음의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당신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비전보다 중요한 부르심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다소에서 살던 그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누구보다 바리새인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전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이 비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변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비전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변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비전보다 중요한 것이 부르심입니다. 우리 자신의 비전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비전, 나라와 민족이 추구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전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야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보다 중요한 단어가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인생으로 부르셨느냐입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비전은 탁월한 율법학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기에 그는 주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은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들에게 아무런 비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쫓아가는 것입니다. 은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전은 직업에서 은퇴하면 끝나지만 부르심은 어떤 연령에 이르렀든지,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비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훌륭한 바리새인이 될 것이라는 비전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부르심으로써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부르심의 내용을 알려주실 때 야나니아라는 사람에게로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네가 할 일을 모두 일러 줄 것이다.’”(10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야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듣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방법입니다. 만약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공동체가 그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를 통해 그 부르심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확인한 부르심입니다. **<13면에 계속>**

특별기고_ 창조신앙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창조주를 믿고, 사명과 존엄성과 정체성을 아는 것

올해는 한국창조과학회가 창립 35주년이 되는 해다. 1981년 발족한 이후 한국의 창조론 교육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초창기 창조과학회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에서 성경 말씀대로 창조가 진화론보다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교계와 성도들은 이를 환영했다.

초창기 창조과학회는 자연계열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창조론 교육이 소수의 학자들뿐 아닌, 일반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많은 창조과학 사역자들을 교육원 과정으로 양성했다.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확대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캠프, 과학실험을 함께 하는 일일 프로그램, 창조과학 동아리 연합 활동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창조과학회는 우리나라 창조론 교육 중심의 창조신앙 강화를 위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 결과 한국 기독교계에 과분한 청천이 자자해졌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계의 지지가 약해지고, 창조과학회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창조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인간의 정체성을 실제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창조신앙교육의 필요성은 첫째, 교회 내에서도 진화론과 유신진화론에 의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창조신앙교육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한국의 줄서기식 입시 교육은 차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주지 못한다. 창조신앙교육은 부모와 교사들에게 올바른 창조신앙을 교육해서 자녀들에게 창조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신앙교육을 올바르게 전수한다면 자녀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창조신앙교육의 목표이자 의의다.

진화론과 유신진화론을 분별하자

창조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비판한다는 것은 오해다. 과학은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에 의한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를 관찰하거나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하나님의 창조를 변증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창조론 교육은 하나님의 창조 증거를 제시하여 창조에 대한 믿음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

창조를 변증하는 방식은 창조와 진화 두 가지 이론을 비교하는데, 진화론이 주장하는 물질의 진화와 물질로부터 생명체 탄생은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설명한다. 오랜 시간 비과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창조론 교육은 진화론만이 유일한 과학적

해석이란 세상의 학문과는 다르다. 즉, 성경의 기록이 진리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창조과학자들과 창조론 교육을 받은 이들은 과학을 우위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창조과학이 진화론의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 과학을 다루지만 초월적 창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초월적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삶에 적용하는데 맞춰야 한다.

진화론은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과학이다. 하지만 진화론에서도 수많은 주장이 걸린다. 초월적 창조를 거부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 반대로 기독교는 초월적 창조를 주장함으로써 진화론의 정신적 기반인 자연주의에 반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초월적 창조를 거부하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 초월적 창조만이라 생각하는 것을 잘

월적 창조와 연관된 죄와 타락, 구원과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는 창조과학 세미나를 대신해 유신진화론을 새로운 창조론 교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믿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유신진화론이 교회 내에서 지지를 받는 만큼 보이는 현재의 상황은 신앙의 위기임을 직면해 있다.

창조 신앙에 기반 뉘야

이로써 창조론 교육은 더 이상 전문가들이 진화론을 비판하는 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초월적 창조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창조에 대한 믿음이 삶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창조론 교육에 대한 시각

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 주는 교육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부모가 알아야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다

이제 창조론 교육은 창조과학 교육을 넘어 창조신앙 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과연, 부모는 자녀들에게 창조신앙을 가르쳐 주어진 삶의 목적을 향해 준비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정에서 그 일을 하도록 부모를 부르셨다. 또한 학교의 교사들에게 책임은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구비하도록 세우신 것이다. 이제 단순한 지식 전달은 아무 의미가 없다. 현재 세대는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

부모와 교사들은 이를 위해 창조신앙을 회복시켜야 한다.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고,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자녀들에게 창조신앙을 살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창조신앙교육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통치하심, 그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치열한 대학입시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자신만이 추구할 수 있는 위대하고 독특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창조론에 대해 올바른 답을 하지 못한다면 창조론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와 창조과학 사역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된다.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사는 책임은 바로 부모와 교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진화론적 가치관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와 교사들이 직접 나서서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이번 창조신앙교육 축제는 창조과학자들과 기독교 교육 기관들이 함께 창조론 교육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개최했다. 또한 자녀양육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창조신앙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 의의가 있다. 한국 교육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여는 일에 한국 교회가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와 지식의 축적을 넘어선 인공지능 시대에서 창조론 교육이 선봉이 되어 진리를 지키는 일에 값없이 쓰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수많은 창조과학자들은 교회와 군대, 학교에서 창조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헌신이 창조과학을 지켜온 정신인 것이다. 이제는 창조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가정마다 학교마다 교회마다 이뤄지길 기도한다. 한국의 교육을 변화시키는 부모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한국교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창조의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기도한다.



창조론 교육의 핵심은 과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은일 장로 (창조과학회 대표)

못된 선입견이라 말하는 것이다. 유신진화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진화론을 거부하는 창조과학은 기독교 지성을 망신시키는 장본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함정은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자연주의 믿음에 기반을 둔 기원과학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자연주의 믿음에 기반을 둔 기원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는 것이다. 진화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과 자연주의 믿음은 별개이며 진화이론은 순수한 과학적 탐구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유신진화론은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원숭이와 같은 존재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훨씬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과학적 지식이 없는 시대에 쓰여진 성경은 새로운 과학의 발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과학을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신진화론자들은 성경 기록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진화론도 수용하면서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믿을 수 없고, 초

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창조론 교육은 전문가가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에게도 올바른 창조신앙 교육이 전수되어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진화론이 이제는 자연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역사, 심리학, 사회학을 포함한 전 인문분야의 학문세계에도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교에서만 진화론을 배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 속에 진화론적 치열한 생존경쟁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진화론적 가치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창조신앙만이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때문이다. 창조론 교육의 핵심은 과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는 것이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고 공급해주시는 분이다.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므로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독특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창조신앙은 곧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왜 살

특별기고_ 삼위일체의 본질과 핵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동등한 세 분

지난 주일(22일)은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주일이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동시에 동등한 세분이 라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과연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황재명 목사가 삼위일체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 고찰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정체성(예: 네 자신을 알라)에 대한 질문 말고 신(GOD)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신이 인간에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려 한 경우는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해 온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우선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신 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향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가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요 20:28)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하나님이시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는 존재는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들이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음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마 8:29, 막 3:11, 눅 4:41).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며(빌 2:6-9), 나아가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뜨거운 신학적 논쟁과 다양한 해석, 심지어 이단적 교파들을 몰고 온 이슈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질문이다.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와 제자들의 고백과 같은 신앙적 선포가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개념이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앞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성경 66권에는 단 한 번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루카 로세티의 성 삼위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라는 신학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며, 삼위일체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On the Trinity)>을 저술한 어거스틴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교리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 후부터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인간이 만든 용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논리적·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그 어떤 것도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한 것은 없었다. 이는 하나님 정체성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개념화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왔을까? 약 3400년 전부터 1500년 동안 쓰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66권의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절대적인 근거와 토대가 되어야 한다.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인 유대인과 무슬림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연 교회가 경배하는 하나님과 동일할까? 오늘날 이슬람교는 “성경 속에 계시된 ‘여호와’와 무슬림이 믿는 ‘알라’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을 현혹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한다. 유대인이나 무슬림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제외하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단어, 신적 호칭을 사용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 짚뽕 하나님의 개념을 유대교와 이

슬람교가 믿고 있는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경전으로 읽고 있는 구약성경을 보면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계시할 때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창 1:26).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형으로 계시하신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이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신약에 들어와 계시되는 성령님(the Holy Spirit)이심을 구약은 세 번에 걸쳐 증거하고 있다(사 51:11, 사 63:10, 11). 또한 구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와 사자’라는 또 다른 신적 존재를 언급하며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격으로 묘사하고 있다(창 16:7, 22:11, 출 3:2, 민 22:22 등). 특히 사기 6장 22~23절을 보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그를 여호와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구약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수 정체성은 신약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의 세례(눅 3:21~22), 예수님의 지상대명령(마 28:19), 사도 바울의 축복기도(고후 13:13, 고전 12:3~6) 등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대로!

확고한 성경적 사실을 근거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교리를 확립해가면서 논쟁의 소지가 되었던 것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의 논리나 제한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신약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공생애 동안 베푼 기적,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증언들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이상의 신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 다음으로 신학적 논쟁의 요지가 되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인가?’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고전 6:11), 그리스도의 영(롬 8:9), 하나님 아들의 영(갈 4:6), 진리의 영(요 14:17)으로 계시된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이나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과연 인격체로 역사하고 계시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있어왔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분명 지성(사 11:2, 요 14:26), 정서(사 63:10, 엡 4:30), 의지(행 16:7, 고전 12:11) 등을 소유하셨고, 나아가 ‘말씀하시고’, ‘찾으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등의 관계적 사역을 수행하심으로 단순히 영으로 존재하는 신적 위격이 아니라, 성도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심이 분명하게 증거되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으로 유일하시며(신 4:39), 동시에 복수로 존재하시고(창 1:26), 하나님의 아들 이신(요 3:16)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동시에 하나님 본체이시고(빌 2:6),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며(롬 8:9, 갈 4:6),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시다고(고전 6:11). 이러한 성경적 사실을 바탕으로 교리의 토대를 확립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세기 신학자 린셀과 우드브리지는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지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증명은 그 어떤 논리적 사고나 과학적 지식, 종교적 이론이나 철학적 사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적 논리나 제한된 경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성경 66권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대로를 경험해야 한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삼위일체의 신비(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동등한 세 분)가 불변의 진리로 고백될 것이다.

삼위일체 진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니까?

의종은 서산 온누리와 한마음교회의 꿈

“충남 예산군 모든 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 전파할 것”

충청남도 예산군은 밤새 서로의 눈에 벅찬 열정을 쏟아준 ‘의종은 형제’ 이야기 발생지다. 그 이야기의 고장답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산 온누리교회와 충청남도 예산군 한마음교회도 의종은 형제이야기 못지않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실시했고,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지역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한마음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과정 수료예배에 다녀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에 위치한 한마음교회가 무척 분주하다.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과정 수료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한마음교회 김희찬 담임목사가 수료예배 준비를 진두지휘하면서 구슬땀 흘리고 있다.

“관사님이 간증을 해주시고, 집사님은 파워포인트(PPT)를 잘 넘겨주세요” 귀한 손님들이 오는 모양이다.

같은 시각,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분주하다. 1시 예배를 드리지마자 부리나케 한마음교회로 출발했다. 산 넘고 강을 건너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성도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도착하자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벅찬 반대로 나와 반겼다. 서로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 곧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았다.

“장로님네 소는 송아지 잘 낳았어요?” “그럼요, 기도 해주신 덕분에 잘 낳았지요” 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친근한지 꼭 한 마를 사람들, 아니 형제자매 같았다.

송영동 목사(서산·태안 온누리교회)가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과정 수료예배에서 설교를 했다.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좋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희찬 목사(한마음교회)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마음교회에 잘 정착 시키고, 다른 교회에도 전파해서 예산군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양육 절실했던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는 작은 농촌교회다. 11년 동안 한마음교회에서 사역한 김희찬 목사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양육이었다. 김 목사가 부임한 2005년에는 한마음교회 성도가 단 한 명이었다. 1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과 기도 덕분에 지금은 40여 명의 성도가 예배드리고 있다. 성도 수가 늘어난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양육이 부족한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다. 양육이 부족한 성도들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실족하고 말았다. 그동안 좋다는 양육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시도했지만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 목사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교회로 거듭나고 싶었다.

지난여름 한 줄기 빛을 만났다. 온누리교회 과천의왕공동체가 한마음교회로 아웃리치를 온 것. 김 목사는 과천의왕공동체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해서 알게 됐다. 김 목사는 목사와 성도간의 양육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간의 양육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면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릎을 쳤다. “온누리교회 평신도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천의왕공동체 성도들은 그 비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라고 하더군요. 한마음교회에도 일대일



충남 예산 한마음교회에서 드린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수료예배.

제자양육을 도입해 성도들을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김 목사는 곧장 일대일 제자양육을 신청했다. 서산 온누리교회는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만나다

2015년 12월 6일부터 한마음교회 김희찬 목사와 성도 8명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기 시작했다. 김 목사의 끈질긴 부탁에 억지로 일대일 제자양육에 참가한 성도도 있었다. 한마음교회 백승욱 장로가 그 주인공이다.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됐지 무슨 양육이 필요하겠냐고 생각했어. 그런데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아보니 아니더군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좋은 것을 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어 근질근질합니다.”

서산 온누리교회 일대일 대외사역팀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선을 다해서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섬겼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거듭될수록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달라졌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정말 재미있고, 서산 온누리교회 성

도들의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맞지 않는 날에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집까지 찾아가 일대일제자 제자양육을 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포기한 사람 하나 없이 9명 모두가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했다.

“교단도 다르고, 친분도 없는 교회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인 저 뿐만 아니라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서산 온누리교회의 섬김과 양육을 지역교회에 나눌 것입니다.”

한마음교회는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 과정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영적 리더십을 세우고,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비전으로 자리 잡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충남 예산군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전파하겠다는 큰 꿈을 꾸고 있다. 서산 온누리교회에서 한마음교회로, 한마음교회에서 충청남도 예산군 교회 전체로 퍼져나갈 일대일 제자양육이 일으킬 영적 소동이 기대된다.

목회칼럼

도움 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서산·태안 온누리교회는 나눔과 교제가 풍성하다. 서산 온누리교회는 5월 첫째 주에 야외예배를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태안 온누리교회가 야외예배를 드렸다. 전체 성도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다. 두 교회 성도들의 나눔과 교제는 교회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뻗어나가고 있다.

태안기름유출사고 당시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일까. 두 교회 성도들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정말 많이 한다. 지난해에는 한 이주민센터에서 ‘이주민들이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는데 태안 온누리교회가 도와줄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왔다. 태안 온누리교회의 ‘꿈이자라는땅’이라

는 사회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꿈이자라는땅’은 지역사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서산·태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꾸린 사회복지재단이다.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직접 결혼식을 준비했다. 꽃을 준비하고, 드레스를 준비해서 이주민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왔다. 성도들이 준비한 이주민 결혼식은 천국잔치만큼이나 은혜로웠다. 이번 주일에도 이주민 결혼식이 열린다.

서산·태안 온누리교회는 지역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데에도 열심이다. 매년 여름 이 지역 미자립교회 차세대들을 위한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대전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함께한

다. 어느 교회나 그렇겠지만 지방교회는 청년부흥의 물꼬를 트는게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산·태안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지역교회 청년 리더십들을 위한 청년연합 집회도 열고 있다. 이 지역 청년리더십 70여 명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에 관련된 고민도 나누면서 지역교회 청년부흥을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다. 또한 서산·태안온누리교회에서는 격주로 중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찬양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서산·태안 온누리교회는 이주민부터 차세대, 청년,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여념이 없다. 두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섬기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고 은혜롭다.

서산·태안 온누리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로부터 받은 섬김과 은혜를 나누고 있을 뿐이다.

일대일 제자양육 대외사역도 그 일환이다. 섬기고 나누는 온누리교회의 DNA가 서산·태안 온누리교회에도 심겨진 것이다. 이제 서산·태안 온누리교회는 충청도 서부지역을 복음화 시키는 전초기지로서 성장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송영동 목사
(서산·태안 온누리교회)

크리스천 리더들이여! 세상을 변화시켜라!

크리스천 CEO포럼,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세상에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크리스천 리더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CEO포럼(이하 CCF)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공동체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비전이다.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22일, CCF가 파크루안 파크웨스트홀에서 '소명(The Call)'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소명>의 저자 오스기니스는 "성경적인 기업경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故하용조 목사의 말인 동시에 CCF의 비전이다. CCF는 2006년 기업이나 기관의 CEO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도를 하고 양육하면서 Acts29 비전을 이어가는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태동했다. 2007년 2월 23일 성경적 원리로 사회변화에 앞장서는 모임이 될 것을 다짐하며 발족했다. 지금은 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CCF에서는 온누리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리더들도 함께 참여하여 비전을 나누고 있다. CCF는 다섯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웃과 나라와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둘째, 성경을 배우고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한다. 셋째, 사회 각 분야의 평신도 리더십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넷째, 사회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다섯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 시대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SIG(Special Interest Group)'를 만들어가고 있다. SIG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성경관점에서 바

라보고 논의하는 모임이다. 인권·동성애,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러브소나타·한일 리더십 포럼, 사회선교·청년벤처, 의료보건, 환경, 기아·빈곤, 북한·통일, 여성등이 바로 그것이다. CCF는 정기포럼을 통하여 SIG에서 제안된 주제를 대상으로 포럼을 열고 사회문제의 절박함과 기도제목, 지원방안 등을 나누고 있다. 사회선교·청년벤처 SIG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벤처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실업으로 좌절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창업을 통하여 그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CCF 회원들이 직접 멘토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CCF는 각계 각층의 리더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리더십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일과 영성의 균형 강조

CCF는 일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굿모닝 바이블'을 통하여 성경공부와 말씀나눔을 하고 있다. 한 해에 6~7차례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심도



오스기니스(오른쪽)와 유재권 이사장(CGNTV)이 CCF포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깊은 토론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되는 러브소나타 집회와 더불어 '한일 리더십 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한일 크리스천 리더들이 모여 교제하는 장이다. 지난 18일에는 오카야마 한일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 측 리더들이 차세대 리더인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특별했다. 일본의 리더들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8년 동안 쌓은 신뢰로 얻은 긍정적인 성과다. 일본 지역신문에도 이번 한일 리더십포럼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다. 또한 연 1회 국내외 아웃리치를 간다. CCF 회원들에게 단기선교와 영성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CGNTV와 협력해 한국에서 섬겼던 선교사들이 은퇴하여 머물고 있는 미국 블랙마운틴을 방문하여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올해는 해외 아웃리치로 하와이에서 열리는 '영성집

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매년 12월 둘째 주에는 CEO를 위한 맞춤 전도집회인 'The 멋진 당신'을 개최하고 있다. 2008년 12월 14일 골프선수 최경주 선수를 강사로 초청해 열었던 CEO 맞춤전도 집회를 시발로 매년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감동적인 메시지를 통해 믿지 않는 CEO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과 OCC (Onnuri CEO Community)공동체는 CCF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CCF회원이 되어 CCF 포럼을 통하여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도록 하고 있다.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 졸업생이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OCC공동체에 소속된 순모임에서 참석토록 권장하고 있다. CGNTV와 일과 영성을 다루는 '지엔엠 글로벌 문화재단(Grace&Mercy)', NGO 더멋진세상, 해비타트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사역칼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CCF는 윌리엄 월버포스와 클라팜공동체를 모델로 삼아 시작됐다. 윌리엄 월버포스는 18세기 세계 최대 노예 무역국이었던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부유한 집 아들로 태어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유럽을 여행하던 중 회심했다. 그날 이후 방탕한 삶을 접고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클라팜공동체는 윌리엄 월버포스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클라팜 지역에 모여 만든 공동체다. 클라팜공동체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약 40년 동안 싸운 끝에 1789년 5월 12일 노예무역을 금지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사건이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선언한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다.

CCF도 클라팜공동체와 같이 변화를 일구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맞춤전도집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SIG 회원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 CCF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Changing maker)을 세우고자 한다. 사회 현상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Resister), 여러 사람과 기관을 연결하는 사람(Networker),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키워주는 사람(Nurturer),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Investigator), 대중과 소통하고, 확산시키는 사람(Communicator),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Builder) 등이 포함된다. CCF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 분야와 협력해 사람을 키우고, 조사해서 알리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CCF 회원들은 각 분야 리더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역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있다. 모두 하나

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다.

지난 9년 동안 하나님께서 CCF를 주관하고, 이끄셨기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나는 올해 3월 이용만 장로, 최도성 장로, 강신의 장로, 윤영각 장로에 이어 CCF 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할 때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짠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CCF가 짠 맛을 잃지 않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과연 세상 속에서의 짠맛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커뮤니티스(Communitas)라고 한다. 앞으로 CCF는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가지고 공감, 참여, 실천을 해나갈 것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SIG를 정착시키는 일에도 힘쓸 것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각자의 달란트를 가

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한다. CCF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다.

나는 CCF에 여러 성도들을 초대한다. 그러면 그들은 "나는 CEO가 아니에요"라고 말한다. 지금 CEO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앞으로 CEO가 될 성도 누구나 CCF 회원이 될 수 있다.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의 약자다. 크기에 상관없이 리더 자리에 있고, 또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모두를 환영한다. 세상의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들을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왔으면 좋겠다.



이남식 장로
(CCF 회장)



2016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현장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으십시오”

행복드림콘서트 282명 참석, 196명 결신

65세 이상 부모 초청 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는 역시 천국잔치였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을 선물하는 축복의 장이었다.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됐다. 평생 교회라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을 열지 않던 엄마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있었을까. 지난 23일 열린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현장을 다녀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5월 23일 오후 5시. 아직 집회가 시작되려면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북적인다.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떨림, 설렘, 걱정, 염려 등 다양한 감정들을 숨긴 채 말이다. 나이 지긋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회에 입장하는 모습이 참 포근하고 훈훈했다. 난생 처음 교회에 온 부모가 혹시 어색해하거나 낯설어 할까봐 팔짱 낀 딸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 있었다.

드디어 오후 6시 '행복드림콘서트'가 시작됐다. 행복드림콘서트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65세 이상 부모를 초청해 복음을 전하는 맞춤전도집회다. 결신율이 매우 높아 '전도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린다.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 행복드림콘서트의 주제는 '나의 부모님께 소중한 행복을 드립니다'이다. 자녀들의 초대를 받은 부모 282명이 참석했다. 전도지역본부도 난생처음 교회에 온 부모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안내도우미들의 미소가 얼마나 예뻐던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행사장인 본당에는 원형테이블이 깔려있었다. 정성들여 꾸며 놓은 행사장은 특급호텔에 와 있는 기분이 들게 했다. 거기에 은은한 조명이 더해지니 더욱 그럴싸했다.

예수의 마음으로, 내 부모처럼

전도대상자들이 테이블에 앉자 이번에는 테이블 리더들의 섬김이 시작됐다. 온누리교회 장로, 공동체전도사역자 45명으로 구성된 테이블리더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이날 테이블리더로 섬긴 정병균 장로(영등포공동체)는 "전도대상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승근 집사(과천의왕공동체)는 "내 부모님처럼 느껴지는 모든 전

도대상자들이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그 마음이 섬김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이래서 교회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진히 섬겼다. 공동체 전도사역자들은 부부가 함께 섬겼다. 남편은 테이블리더로, 아내는 테이블섬김이로 전도대상자들의 식사를 돕거나 필요를 채워줬다. 그래도 부모들을 교회에 초청한 자녀들의 마음이 안심되지 않은 것 같다. 테이블리더에게 찾아와 "잘 부탁드린다"고 간절하게 부탁했고, 테이블리더들은 "내 부모처럼 모시겠다"고 화답했다. 자녀들의 조마조마한 마음이 이해가 된다. 난생 처음 교회에 오신 부모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거듭나기를 얼마나 기도해왔을까. 그들의 마음이 테이블리더들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다.

정갈한 식사가 차려졌다. 테이블리더들은 전도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은 없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물으며 살뜰하게 챙겼다. 전도대상자들은 테이블리더들과 스태프들의 따뜻한 섬김을 받으면서 즐겁고,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그 시각, 자녀들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두란노홀에 모였다. 행복드림콘서트에 참석한 부모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려는 것이었다. 초청된 부모 282명 모두가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했다.

이날 행복드림콘서트에 어머니를 초청한 최원석 성도(천양공동체)는 맞춤전도집회에 가는 기대가 크다. 지금껏 진행되었던 행복드림콘서트를 유심히 지켜봐 왔다. 2013년부터 시작된 행복드림콘서트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부모들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도 예수를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어머니께서 교회에 선입견이 있었는데 행

복드림콘서트를 통해서 그 선입견과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행복드림콘서트는 온누리교회 성도만을 위한 맞춤전도집회가 아니었다. 타 교회 성도들도 참석했다. 이명옥 성도(남포교회)는 한동대학교 어머니모임에서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행복드림콘서트에 대해 듣고 올해 88세 되신 어머니를 초청했다.

"어머니를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연로하신 탓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동, 그리고 열매

오후 7시,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행복드림콘서트가 시작됐다. 자녀들은 본당 2층에서 행복드림콘서트를 지켜봤다. 두 손 모아 엄마아빠가 예수 믿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행복드림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도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듯 소리가 우렁찼다.

국악팀 '가야랑'이 포문을 열었다. 가야랑의 국악공연이 시작되자 전도대상자들이 손뼉을 치면서 함께 박자를 맞췄다. 국악팀 가야랑과 함께 신명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이어 샌드에니메이션 공연이 시작됐다. 박진아 작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이날의 작품은 '부모님'이 주제였다. 모래로 표현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전도대상자는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가슴 깊이 와 닿았다. 개그맨 이홍렬과 이성미가 진행을 맡은 공감 토크쇼는 한바탕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시간이었다. "자녀지만 이럴 때 서운하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크쇼가 진행됐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서운할 때는 "엄마아빠가 뭘 알아?"라고 말할 때였다. 토크쇼를 지켜보던 전도대상자들도 그 말에 공감되어선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방송인 오미희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낭송했다. 아버지의 힘겨운 삶을 노래한 시를 낭송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지난날 힘들었던 삶이 떠오른 듯 눈물을 보이는 전도대상자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시 낭송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서 또 한편의 영상이 흘러나왔다. 자녀들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하다"인사를 하는 자녀의 얼굴을 보고 부모들의 표정이 이내 밝아졌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무대에 올랐다.

"희망 없이 사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으십시오."

설교가 끝나고 조호영 목사가 결신카드 작성방법을 안내했다. 곳곳에서 전도대상자들이 결신카드를 작성했다. 그 시간 가수 노사연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선물했다. 실버성가대도 아름다운 찬양을 선보였다. 찬양이 끝나고는 자녀들이 화관을 씌어줬다. 꽃다발도 선물했다. 서로를 얼싸안으며 축복했다. 천국잔치가 바로 이것이었다. 자녀들의 기도와 부모들의 사랑이 어우러진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이날 전도대상자 4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46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했고, 110명이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했다. 참석자 282명 중 196명이 결신했다. 추후 이어지는 후속프로그램 '가차여행'을 통해서 더 많은 전도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마모토 지진 피해 현장을 다녀와서

부르심에 순종한 작은 영웅들

지난달 14일과 16일 발생한 두 차례 강진으로 일본 구마모토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온누리교회는 비탄에 빠진 구마모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구호팀을 파견했다. 온누리교회 구호팀 22명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지진 피해 지역 복구와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구슬땀 흘렸다. 특히 청년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구호팀에서 맡은 역할은 달랐지만 마음만은 같았다. 그 땅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작은 영웅들이 귀한 간증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일본 구마모토 지진피해 지역으로 출발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지진피해 지역에서 육인경 자매가 잔해를 치우고 있다.

귀한 경험, 귀한 감동, 귀한 은혜

내가 온누리교회 구호팀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는 4월 1일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춰보기를 소망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 이상 나중심이 되어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 지금부터는 제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주님의 음성과 말씀, 기도 없이는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기다렸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을 서른 살이 되어서야 가지게 되었다.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30대를 시작한 나에게 거는 기대감으로 자리 잡았다.

5월 8일 여호수아공동체 예배에서 흘러나온 온누리교회 구호팀 모집광고를 보고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진 피해 지역으로 파견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

도 예측할 수 없기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다. 나는 지금까지 일본 땅을 위해,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를 하거나 마음을 쏟은 적이 단연코 없다. 교회에서 러브소나타 집회 등 대대적인 일본 선교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도 일본은 단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여행지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구호팀으로 자원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닐 수 없다. 구호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구마모토 시내와 아소산 근처 교회에서 구호작업을 시작했다. 지진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집의 잔해들을 청소했다.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께 한국노래도 불러드렸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마을주민 2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그 과정이 잊히지 않는다. 우리의 사역은 다양했고, 그날 그날 달라졌다. 나는 일본어를 말할 수도, 듣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런데 어느새 일본인 목사님과 일본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언어, 민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몸과 마음이 상한 그들에게 행동과 눈빛으로 나눠 줄 뿐이었다.

무너진 집의 유리 조각들을 줍고, 잔해들을 치우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본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나에게 이번 구호팀 활동은 매우 새로운 방법의 사역이었다. 주님께서 이전이나 이후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돌아 날쌔게 기대한다. 온누리교회 구호팀의 열정처럼, 일본인들의 구원을 위해 미약하나마 기도를 시작할 것이다. 귀한 경험, 귀한 감동,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 육인경 자매(대학청년부 여호수아공동체)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역 구호팀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나는 지난 5월 8일 길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조준목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조 목사님이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역에 갈 구호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한번 지원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다.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인원을 10명만 뽑기 때문에 뽑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 목사님의 설명에도, 나는 100%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체류 경비를 지원해준다는 조건도 망설임 없이 지원한 이유 중 하나다. 사실 나의 통장에는 23,650원밖에 없었다.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그 돈으로 일주일을 버티기에 힘든 금액이었다.

나는 지난해 말 시작한 사업이 보기 좋게 망하면서 올해 3월부터 실직자가 되어버렸다. 4월과 5월 천안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원래 계획은 천안에서 잡혀있던 막노동을 하고, 5월 14일에 서울로 올라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정

보다 일찍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그때 온누리교회 구호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가 사업이 망한 것, 막노동을 하며 연명하는 것, 일주일 일찍 서울로 올라온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우연을 모아 필연으로 만드시는 것 같았다. 흥겨운 마음으로 구호팀에 자원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구호활동을 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고, 음식을 만들어 상심한 현지인들에게 대접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역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집을 청소한 일이었다.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악취가 진동했다. 또 무엇인가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 외관은 멀쩡한 아파트였는데 집안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더러웠다. 바닥에는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있고, 살아있는 바퀴벌레들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이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러웠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앞집에 사는 친오빠가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 할머니는 어릴 적에 교회 유치

원을 다녔었다며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셨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할머니의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할머니를 붙잡고 목사님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를 했다.

그 집을 청소하면서 얼마나 더러운지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 집을 청소를 하면서 나는 이 집보다 더 더러운 텐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일본 구마모토 땅으로 보내주신 것 같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있는 나에게 이번 구호팀 활동이 큰 힘이 되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역을 통해 나를 치유해 주셨다. 다시 한 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 한지웅 형제(대학청년부 길공동체)



봉사를 마친 구호팀과 현지 봉사자들.



한지웅 형제가 지진피해 지역 잔해를 치우고 있다.

2000선교, 시드니 'Why Mission' 개최

11~17일 61명 참석, 온누리교회 선교 비전 공유

2000선교본부가 시드니 온누리교회에서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와 이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시드니 온누리교회 성도 61명이 참석했다. 이재정 목사(2000선교본부)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구약성경에 나타난 선교', '신약성경에 나타난 선교', '세계·한국 선교역사와 현황', 문화와 선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홍범식 장로를 비롯한 7명은 조장으로 섬겼다.

이재정 목사는 "시드니 온누리교회에서 개최한 와이미션은 오세아니아에 온누리교회 선교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는 기회였다"면서 "국내외에서 선교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는 기회를 계속 만들



시드니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hy Mission'은 2002년 OWMC(온누리세계선교센터)에서 시작되었다. 2009년 2000선교본부로 이전했다. 현재 국내 10개 캠퍼스와 12개 해외비전교회, 대학청년부, 차세대

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6,500명의 선교동원가를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몽골 MIU 국제대학, 안산동산교회, 의정부 비전교회에서도 개최했다.

/ 김미림 기자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장로아카데미 영성수련회 개최

장로아카데미가 지난 5월 20일과 21일 양일 간 영성수련회를 개최했다.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영성수련회에는 조항진, 하영철 장로를 비롯한 40여 명의 장로가 참석했다. 박종길 목사의 설교, 이장로 장로의 리더십 강의, 김영길 장로의 창조신앙 강의를 이어졌다. 바람직한 장로상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박용국 장로(이촌공동체)는 "내 뜻대로 섬기다 보니 교회와 성도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좋은 리더십에 대해 배웠다"면서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선 장로(일산공동체)는 "온누리교회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장로가 돼야 된다"면서 "이번 영성수련회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 김명선 기자 k4458@onnuri.org



장로아카데미 영성수련회 둘째날, 올바른 장로상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

온누리M센터 오늘 오후 2시 헌당예배

이재훈 담임목사, 정파종 장로 등 참석

온누리M센터가 오늘 오후 2시 신축한 건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에서 헌당예배를 드린다. 정파종 장로(당회서기)가 기도하고, 온누리M미션 9개국 예배 위원이 특순을 한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하고, 축도는 최덕순 목사(양문교

회 담임)가 한다.

2부 행사에서는 신현승 장로(선교분과 위원장)가 감사인사를 하고, 김기호 장로(디자인건축 위원장)가 경과보고 및 감사패를 전달한다. 케이 크 커팅식에는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외국인 목회자(레비, 바닷, 마눔),

다문화 아동(스타사, 사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누리M센터는 1993년부터 안산 원곡동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시작했다. 현재 온누리M센터에는 9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550여 명이 13개국 언어로 예배드리고 있다.

문의: 031-491-9650

/ 김미림 기자

양재 온누리상담센터, 미술집단상담 시행

양재 온누리상담센터가 미술집단상담 프로그램 '그림아 나랑 친구할래?'를 시행한다. 6월 1일부터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그림아 나랑 친구할래?'는 미술적 치료활동을 통해 내면을 돌아보고, 자아성장을 촉진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소속 6~7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은빛날개 6기 참가자 모집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성도를 위한 '은빛날개' 프로그램이 6월 3일(금) 개강한다. 6월 3일부터 24일까지 4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크림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도전하라! 영웅들이여!" 청년벤처포럼 참가자 모집, '어벤처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FWIA (Faith & Work Institute Asia), CCF(Christian CEO Forum)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6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자를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대회다.

일반부문과 아이디어부문의 참가자를 찾고 있다. 일반부문은 법인설립 3년 미만의 영리·비영리 단체 청

년 벤처인, 아이디어 부문은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팀)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소셜비즈니스 모델 기술서, 팀역량 기술서, 교적증명서, 1분 소개 동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532-1110

http://blognaver.com/aventure2016

e-mail: aventure2016@naver.com

S브릿지공동체 기도축제 개최

6월 10일 서빙고 두란노홀

S브릿지공동체가 창립5주년을 기념하는 '기도축제'를 개최한다. 6월 10일(금) 오후 8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33세부터 44세 미혼 청년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

기도축제에서는 강미향 목사가 '모세의 기도' 주제로 강의한다. 모세가 기도한 방법을 살펴보고, 중보기도와 개인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안수기도와 애찬 나눔도 준비하고 있다.

컴패션과 북한사역 파트너십 협약

온누리교회 등 서울·경기지역 27개 교회 참석

온누리교회가 한국컴패션과 '북한사역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4일 한국컴패션 한남동 사옥에서 서울·경기 지역 27개 교회담임목사와 교회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사역 파트너십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27개 교회와 한국컴패션은 북한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을 양성할 것을 다짐했다.

북한사역 파트너십 협약은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지난해 6월에 진행된 '2015 북한사역서밋'에서 헌신 서약을 했던 100개 교회 중에 27개 교회가 이번 1차 협약식에 참가했다. 2차 협약식은 6월 28일 부산과 10월 서울 및 영남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총 200개 한국 교회가 북한 어린이들을 마음에 품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5월 세례자

■서빙고	이찬희 이정민	△유아	양나은 141022	이정래 830128
박신환 770421	신예준 140728	강다인 151112	양주희 조은미	
김건주 821209	신성호 고수희	강석동 황진희	오예은 150403	■대학청년부
박주연 930512	오하린 140503	김아영 140930	오정민 문지연	요셉
신영재 851223	오주영 장화영	김형욱 강상은	이하영 150610	△유아
안소영 700503	정대일 141211	김예원 140827	이종원 김지현	김주아 150129
오소정 730828	정경록 조수양	김진모 한경희	임지우 150403	김승진 정은선
△임교	홍은하 140815	김예준 140302	임정우 방희연	김예겸 160128
김예린 901231	홍승순 남윤지	김완중 김유진	임해나 150717	김영웅 한성은
△유아	김예찬 140820	김 윤 150213	임원현 이승희	
김현준 140618	김성민 김미경	김태완 김명숙	장재안 140713	허브
김건백 윤선정		김주현 140601	장민석 김지은	이동현 931109
강려안 140610		김보찬 이정민	정재준 140609	△임교
강석현 양진희	권도경 9740903	김 준 140511	정호영 이지선	이지민 920724
권리아 150113	김선아 9810502	김 역 박현선	최누리 151120	박서영 950929
권수현 고아라	김수환 9790110	김하연 151007	최윤호 박지연	이예진 960411
권윤재 140618	방 현 9690630	김기훈 이지혜	최아임 150924	
권영준 김태은	오홍석 9850607	동이준 150914	최종근 김지인	
김현규 141112	임태형 9810924	동우진 이신현		
김형종 김성민	진승립 9841121	손주는 140814	■특별한초대	
배유나 151003	황해선 9780926	손재원 김성희	김태웅 870312	
배영민 유인경		송나은 140827	김향숙 710108	
이성배 150914		송은성 김성미	박기선 841215	

■ 은빛날개 수료 간증



/ 유인순 성도(관악금천공동체)

청량한 그늘을 찾게 되는 초여름이다. 날씨의 변화와 계절의 바뀜은 내 삶을 조망하게 한다. 남은 생의 길이를 생각하게 한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사랑으로 산다”고 했다.

나는 사랑으로 살았는가? 지나간 시간들을 반추하며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화두일 것이다. 현대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내 인생의 전성기는 60대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했다. 백발의 면류관을 쓴 아름다운 노후를 희망한다면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은빛날개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난 삶, 은퇴 같은 나이가 들면 따라오는 모든 것이 고민이었다. 그런 나에게 은퇴 후 인생을 점점하는 양육프로그램 ‘은빛날개’가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지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내다 볼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생의 기억과 주요사건들을 적어보면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위기의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를 생각했고, ‘나를 잘 극복했다’며 나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기도 했다. 늙어가는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쇠

나이 듦이 고맙다

되와 노쇠의 대명사처럼 들리는 노년은 성숙해 가는 과정이었다. 노년도 발달하고, 성장한다. 지난 생이 일모작이었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이모작이다. 은빛날개를 통해 인생의 이모작이라는 기회를 선물 받았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모임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다. 고집, 아집, 욕심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았다. 노인에게 최고의 덕목이 무엇일까? 어느 마을에 아들 셋을 둔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 양이 17마리가 있는데 첫째아들은 2분의1마리, 둘째아들은 3분의1마리, 막내아들은 9분의1마리를 나누어 가지라는 유언이었다. 양 17마리를 1/2, 1/3, 1/9로 도무지 나눌 수 없었다. 세 아들은 랍비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랍비는 아들들에게 양 한 마리를 더 주었다. 아들들은 18마리가 된 양을 나누었다. 각각 9, 6, 2마리의 양을 나누어 가지고 남은 한 마리를 랍비에게 돌려주었다. 이처럼 노인에게 최고의 덕목은 지혜다.

은빛날개에서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지혜의 안목을 키울 수 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은빛날개 이후 나이 듦이 고맙다.

■ 전도학교 수료 간증



/ 김정은 성도(양지 은누리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경문 장로님께서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리는 의사로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 양지 은누리교회에서 열리는 전도학교에서 장경문 장로님이 강의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함께 등록하게 되었다.

남편은 전도학교에서 의사로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기대가 컸다. 나 역시 같은 마음으로 등록했다. 한편으로는 금요일 저녁 순 예배, 토요일 오전 순장학교 등으로 바쁜 남편이 주일 오후에 10주 동안이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세상에는 누군가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 때문이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굳게 닫힌 문 같지만 손 내밀면 문이 활짝 열리는 경우가 많다는 강의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전도학교를 수료하고 우리 부부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얼마 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며칠 뒤 뺑소니 운전자를 찾았으니 경찰서로 즉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화를 끊는 순간 운전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부랴부랴 전도지를 챙겨서 경찰서로 갔다. 운전자는 무면허 가솔 청소원이었다.

놀랍게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차에 흠집을 내고 도망간 껌찜한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였다. 나도 모르게 입술이 열렸다.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수리비를 받을 마음은 없으니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요”라며 들고 간 전도지를 전해 주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죄인인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월요일 퇴근 후에 환자들 집을 방문해 전도하기 시작했다.

진료실에서도 전도학교에서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매일같이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가며 기도도 한다. 전도학교를 통해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게 되었다.

전도학교를 수료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 기쁨의 회복학교 간증



/ 신규석 성도(가평)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마음으로 기쁨의 회복학교를 수료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요회복예배를 드렸다. 금요회복예배에서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여러 중독 현상을 치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열린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던 중에 기쁨의 회복학교 개설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됐다. 금요회복예배에서 나눔을 통해 회복을 경험해서 일까.

10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어색하지 않았다. 터커지아 위십과 안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율동찬양이 참 신선했다.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히브리 문화적 접근으로 하나님과 소통한 것도 매우 뜻 깊었다. 미군부대로 소풍을 간 날도 잊을 수 없다. 미군의 문화를 보면서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강연을 통해 트라우마의 성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10주 동안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보면서 트라우마와 중독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이제는 가정, 사회, 교회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멘토

치유와 회복

가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기쁨의 회복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습하고 싶다. 내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동료들과 사회구성원 그리고 가족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는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인 갈등이 많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을 위한 대화와 나눔이 절실한데 마땅한 나눔 상대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혼자 아니라 주님과 성도들이 함께라는 것을 깨닫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고 견여주는 것이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기쁨의 회복학교와 같은 공동체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되면 좋겠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실제 치료사례와 복음을 통한 치유, 신선한 레크리에이션이 병행되어 다음번에도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에게 다가올 밝은 미래를 꿈꿔본다.

■ 아버지학교 수료 간증



/ 김시은 성도(백석대학교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꿈

나는 ‘아버지’라는 떨리는 이름의 무게를 잘 몰랐다.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되는 것인 줄 알았다. 이등병이 시간이 지나면 병장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결혼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래서일까. 결혼 후에도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아버지로서의 삶이 고달프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나보다 못한 아버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라며 변명했다. 늘 아내와 딸에게 미안했지만 관철었다. 나는 가장이고, 집에 돈을 벌어서 주니까. 그러나 마음은 늘 공허했고, 급했고, 불안했다. 가정이 내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불안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버지학교에도 스스로 오지 못했다. 항상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 마음이 무거워서였다. ‘좋은 아버지라는 가면이 벗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제일 못한 아버지는 아닐까’, ‘여기서 또 얼마나 가식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라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아버지학교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보였다. 처음으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 다행히도 나는 많이 못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사실 나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 아버지는 늘 바르셨고, 권위적이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고, 아버지는 자유분방한 나를 불안해 하셨다. 그런 나와 아버지가 화해했다. 아버지께서도 나에게 사과를 하셨다. 미안하다고.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사과인데 그 사과를 받고 기분이 이상했다.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지? 왜 사과를 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버지다. 제일 못한 건 교만한 나였다. 어리석은 나였다. 그걸 45세에 알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앞으로 나의 꿈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원래 꿈이 많았다. 이룬 꿈도 있고, 못 이룬 꿈도 있다. 좋은 아버지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아버지학교에 감사한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장로칼럼

축복



전태경 장로
(성북공동체)

저 먼 산 아지랑이 아롱아롱 피어날 때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손짓인줄 난 몰랐습니다
파릇파릇 피어나는 연초록 새순도
당신의 애뜻한 사랑의 노래인줄 난 몰랐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아롱아롱 가슴에 안고 날 찾아올 때도
그것이 나를 향한 프러포즈인줄 난 몰랐습니다

거센 바람이 애처롭게 달려있는 노오란 단풍잎이
을씨년스럽게 느껴지는 어느 날...

난 당신의 뜨거운 가슴을 보았습니다.
종종 곁으로 달려와 외락!
나를 감싸 안는 따뜻한 가슴을 보았습니다
그 가슴 속에 내가 좋아하는 붉디붉은 홍시가 있었습니다
완두콩으로 하트를 그린 예쁜 도시락도 있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것 알지? 하며
미소로 응시하는 당신의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아!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을 꼬옥 잡을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이 시는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쇠약해진 배우자를 정성 다해 간병하는 남편(혹은 아내)을 보고 적은 시다. 몸이 건강할 때는 자신을 향한 배우자의 사랑을 알지 못하다가 애처롭게 달린 단풍처럼 건강을 잃게 되면 그제야 배우자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만을 뜻하지 않는다. 부녀나 모자의 관계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뜻하기도 한다.

권사칼럼

언제든지 두 팔을 걷고



김명희 권사
(서산 온누리교회)

나는 지난 해 12월 첫째 주일 충남 예산에 있는 한 마음교회에서 일대일 제자 양육 동반자 반 입학예배를 준비했다. 연말행사와 연말결산 등으로 무척 바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일 서산 온누리교회 주일예배가 끝나면 곧장 한마음교회에 가야 했다. 무척이나 바쁜 일정이었다. 양육자 몇 명이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16주 동안 주일 오후 시간을 빼는 것이 난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산 온누리교회 송영동 목사님은 “여름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신청하고, 겨울까지 기다린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양육자들을 독려했다. 목사님의 말씀에 나를 비롯한 일대일 양육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했다.

지난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동반자들을 만나기 위해 눈길을 뚫고 가는 것이 예상일이었다. 폭설로 길이 막혀 가다가 되돌아오거나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출발을 못한 경우도 있었다. 몇 주 동안 주중에 혼자 한마음교회를 방문한 양육자도 있었다. 아마도 오고 가는 자동차 안을 지성소 삼아 성경집회를 했을 것이다. 그 양육자는 한 번도 힘든 내색 없이 기쁘게 다녀왔다. 일대일 제자양육 대외 사역팀장으로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사역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양육자를 흐뭇하게 바라 볼 뿐이었다

동반자와 양육자가 처음 만났을 때 몇몇 동반자들이 “그 멀리서 16주를 어떻게 오겠어. 몇 번 오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동반자들이 만남이 거듭되고, 눈비를 뚫고 오는 양육자들의 헌신에 마음을 열었다. 주중에도 양육자들의 안부를 궁금해 하고, 얼른 주일이 돼서 양육자들을 만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산을 넘고 논밭을 지나 한마음교회가 보이면 교회 마당에서 목사님, 사모님, 동반자님들이 손을 흔들어 맞이해 줬다. 예수님께서 “잘 왔다”고 말씀 하시며 손을 흔들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한마음교회 담임목사님 때문에 억지로 불러왔다는 동반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 계속 만날 수 있나요?”, “양육자반은 언제 하나요?”

그렇게 냉랭했던 얼굴에 이제는 미소가 가득하다.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 동반자들은 양육자들이 서산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두 손을 꼭 잡고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우리가 처음 만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던 그 때에 성령님께서 심으신 씨앗이 동반자의 마음과 영혼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 수료예배에서 송영동 목사님의 설교제목이 ‘다시 축제를 시작하세요’였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축제를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은혜에 취해 있을 것이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만 예수님의 은혜에 취하지 말고,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서산 온누리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두 팔 걷고 나서겠다.

신앙에세이

사막에서 만난 하나님



정장철 목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섬기던 때였다. 몽골의 초이발산으로 여름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한국에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봉고차로 갈아타고 24시간을 더 가야 하는 힘든 일정이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런 소식이 들렸다. 일정이 잘 맞아서 경비행기로 2시간이면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20여 명의 승객을 태운 경비행기가 저공비행으로 목적지까지 아슬아슬하게 날아갔다. 덕분에 몽골 내륙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사막의 모래 먼지 사이로 어른거리는 항공기의 그림자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는 미국 땅에서 그때 그 사막을 떠올리고 있다.

사막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다. 열기와 목마름, 고독과 황량한 분위기가 다가오는 이들을 밀쳐내기에 충분하다. 사막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신기루를 품은 사막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과 상관없는 낯선 존재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면 사막이 그리 멀지 않다. 두 시간 거리에 있는 팜스프링스나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에 있는 라스베이거스도 기후로는 사막이다. 그럼에도 그 도시들이 사막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화려한 건물과 자동차,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때문일 것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막과 관련 깊은 영성은

동이다. 바로 수도원운동이다. 사막과 수도원운동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지만 수도원운동의 출발점이 사막이었다. 로마의 국교인 기독교가 세속화 되어갈 때 중세 수도원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갱신 혹은 대안이였다. 보석과 같은 존재였다. 중세 수도원운동의 영적인 길라잡이였던 초기 수도원이 사막에 있었다. 박해를 피해 사막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박해가 잠잠해진 후에도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에게 사막은 단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도피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사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이 닫히고, 내면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사막은 죽음이라 생명이었고,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축복보다 하늘의 축복이었다. 세상의 욕심이 사라질 때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걸 보았다. 사막에서 믿음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집을 찾았다.

“악인들의 장막에 (편하게)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시다”(시 84:10).

모세는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갔다. 그 후 40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았을 것이다. 죽음을 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집트의 현상수배자가 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잊힐지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 사람들에게 잊히기 원했던 모세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었다. 모세는 그렇게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해명을 넘어 증거로

여러분, 부르심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언제나 사적인 부르심과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함께 가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고

또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된 사건을 통해서도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바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강렬한 빛이 임했고 그 순간 바울의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체험 중에 왜 눈을 멀게 했을까요. 아랍은 예서를 만나기 전에 환도뼈를 다쳤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신체의 일부를 어렵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랍에게는 왜 환도뼈 입니까. 그는 예서를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예서를 만났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만나서 형과 화해하기보다 공격하면 도망가겠다는 꾀를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다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왜 눈일까요. 그는 많은 지식으로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세상의 지식이었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율법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으로 그가 한 일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지식인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순박한 농

부의 잘못과 지식인의 잘못을 비교해 보면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눈을 뜨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식에 눈을 뜸으로써 영의 눈을 감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눈을 떴다’라고 표현합니다. 인본주의 지식의 눈을 뜬 것입니다. 인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 감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식의 눈을 떴지만 영의 눈은 감겨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육체적인 눈을 순간 멀게 하심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고전 4:6).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빛이 태양빛입니다. 그러나 태양빛은 빛이 아닙니다. 발광체일 뿐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비취질 때 육신의 눈은 잠시 멀었지만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고난이 내 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게 하는 빛을 비취주실 것입니다.

증거하고, 설명하고, 대답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

9:4).

얼마나 인격적인 질문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을 핍박하시는 것으로 동일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머리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회복을 향한 질문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질문도 회복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이 질문은 언제나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땅에 엎드리지게 하셨지만 인격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바울의 해명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호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아닌 주님을 만남으로, 영의 눈이 떠진 것을 간증함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구차한 변명을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해 받고, 때로는 사람들의 편견으로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대답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인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기회의 땅 이란



신현승 장로
(선교분과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란을 국빈방문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란을 방문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1992년 약 한 달 동안 이란에 머문 적이 있다. 마침 그때가 이란의 혁명 기념일이라 호텔마다 해외에서 온 축하객들로 가득 찼었다. 부득이하게 이란의 가정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서 현지 사람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이란의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1979년 호메이니에 의해 이슬람혁명이 일어났고, 팔레비 왕조(親사방)는 부정부패 정권이 라는 죄목으로 전복되었다. 이란인들은 새로운 유훈과이를 기대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이슬람혁명 다음 해에 시작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과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 의한 페

쇄정책으로 이란의 경제가 곤두박질쳤다. 당시 이란의 청년실업률은 40%에 이르렀고, 종교 억압으로 자유는 후퇴하였으며, 팔레비 왕정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2015년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폐쇄정책에서 개방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아마 이란 내부에서 차오르는 불만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란은 성경에서 ‘바사’로 불리는 곳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활동했던 역사적 공간이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이 바사제국에 의해 멸망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살기 좋은 바사에 그대로 남아 살고 있었다.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멸절할 위기에 놓였다. 이때 아하수세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와 모르드개에 의해 유대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었다.

그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만든 명절이 바로 ‘부림절’이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는 사무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준다(삼상 15:9). 이에 분노한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 아각을 직접 죽였다.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각의 아내는 당시 임신을 하였는데, 바사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후손을 이루었다고 한다.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가 600년이 지나 다시 바사에서 사울의 후손과 아각 후손의 생사가 걸린 대결을 보게 했다.

이후 바사 제국, 파르티아 왕조에 이은 사산조 페르시아는 AD 632년 이슬람 지도자 칼리드 이븐 왈리드가 이끄는 아랍 기마 부대에 패하여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러다 1979년 호메이니 혁명에 의해 이란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Iran)이라는 국호를 쓰며 강력한 이슬람 신정 국가가 되었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국가 최종 결정권자이다. 그러나 혁명 후 37년 동안 이슬람 신정정치에 회의를 느낀 이란인들이 복음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란에서는 이란어권에 24시간 송출되는 기독교 위성방송 Sat7-Pars, 미국에서 방송하는 Mohabbat TV, Nejat TV 등이 방송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 그 숫자를 정확히 통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생적으로 발생한 기독교인 수가 40만이라고도 하고, 100만이라고도 한다. 이란혁명 전에 서구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실로 오묘하다 할 수 있겠다.

이란은 인구 8,100만 명, 한반도 10배의 땅에 세계적인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가진 나라이다. 그 이란이 서방의 10년 제재로부터 벗어나 문이 열리고 있다. 한국은 어려운 경제 난국을 돌파하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이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란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도 한 몫 할 것이다. 한국 드라마 ‘주몽’, ‘대장금’의 시청률이 90%에 달한다고 한다.

앞으로 개방된 이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현지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한국으로도 많은 이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이다. 그들을 전도하고, 훈련하고, 역파송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